

## 욕망의 탐구... 금기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 카트린느 브레야 감독 라스트 썸머

카트린느 브레야 감독이 10년 만에 신작을 내놓았다. 덴마크 합작영화 '퀸 오브 하츠' (2019)를 리메이크한 영화 '라스트 썸머'는 감독의 전작과 마찬가지로 관능적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다.

필자는 감독의 전작인 '로망스' (1999) 관람 경험을 도대체 잊을 수가 없다.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자 영화제에 관여하던 방송연예과 교수에게서 우수작으로 추천을 받은 영화가 '로망스'였다. 그런데... 영화관을 빈틈없이 가득 채운 관객들 사이에서 동료교수와 함께 관람을 시작했다가 곧바로 '입.틀.막'이 시작되었다. 눈을 화면을 보고 있지만 아무런 소리를 낼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캔스레 옆좌석의 동료교수 보기조차 민망하기 짝이 없어 러닝 타임 내내 별을 서다 나온 느낌이었을까...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 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렇게나 노골적인 연출은 수용에 거부반응이 일었던 기억이었다.

그럼에도 프랑스 소설가이자 감독인 카트린느 브레야 작품이 칸에서 주목을 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고, 필자로서는 응당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서, 그녀의 영화를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다.

안느(배우 레아 드루커)는 청소년 전담 변호사이다. 사회 저명인사답게 아시아계 입양아인 두 딸들, 안젤라와 세레나를 키우며 남편 피에르(배우 올리비에 라보딘)와 함께 엘리트 층으로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중이다. 어느날 남편의 전처가 양육하던 아들 테오(새뮤얼 키르세)가 이 집에 들어온다. 기숙학교에서 사고를 친 말썽꾸러기 10대 소년 테오는 제법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띠고 있다.

감독은 금기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을 안느와 테오를 통해 시도한다. 사회적 관행에 따르면, 청소년 전담 변호사인 안느는 가정 밖에서나 안에서나 여성의 성 역할인 보호자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은 이것이 여성의 천성이자 본능이 아니라는 듯 안느로 하여금 욕망의 맨홀에 적극적으로 밀어넣는다.



'라스트 썸머' 스틸컷.

(주)디스테이션 제공

하지만 자연에서 사회로 돌아간 안느는 지금껏 가꾸어 놓은 일상이 테오에 의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로써 길고 긴 방황과 갈등의 늪이 전개된다.

감독은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욕망 사이의 충돌, 욕망을 대하는 태도를 낱알이 탐구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작품에서처럼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사회윤리적 잣대를 꺾은 채로 인물의 시선과 눈동자의 흔들림,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영화 '라스트 썸머'는 오디푸스 신화의 변주극과도 같다. 신화 속 이오카스테는 자살했지만 안느는 자신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남편 피에르는 거짓을 진실로 수용하는 위선을 마다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미숙하고 취약한 존재인 청소년 전담 변호사가 처한 딜레마에 의붓아들과의 금지된 사랑이 위선으로 붕괴되는 건지... 감독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인터뷰에서 "열린 결말"이라며 여운을 남긴다.

사랑이라는 상태를 몸의 세계로 그려내는 카트린느 브레야 감독은 17세 발표한 첫 소설부터 18세 미만 금지 판정을 받았고, 20~30대에 일찍이 영화감독 데뷔를 했다. 자신이 쓴 성장소설을 영화화한 도발적인 데뷔작 '정말 어린 소녀' (1976)였는데 바로 상영금지를 당했다. 이후에도 그녀가 감독한 작품 '36 사이즈의 작은 소녀' (1988), '완전한 사랑' (1996), '로망스' (1999) 그리고 대표작 '팻 길' (2001)은 모두 성적 수위가 높아 술하게 프랑스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마광수 교수 급이었던 모양이다.

그렇던 그녀도 이제 76세인 노장감독이다. 그녀는 "영화는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라며 "영화는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이자 나의 일부이므로 관객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라는 친근하고도 우아한 인사말을 남겼다. 마광수 교수가 작품 속 인물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듯이 브레야 감독 역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취재수첩

정성현

취재2부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많은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 달간 진행된 '의-정갈등'이 해소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견해만 되풀이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당위성만 강조했다. '국면이 전환될만한 내용이 있을까' 했던 기대감이 허무해지는 순간이었다.

대안은 없었다.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장기화 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사과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작금의 사태를 의사들의 잘못으로 끝고갔다.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강행한 것은 정부의 선택이었지만 되레

## 의료대란 해결 키 쥔 정부

"합당·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의료계를 다그쳤다.

의료계 문제로 인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면 최소한 이 혼란 상황을 풀 구상을 들고 왔어야 했다. 오죽하면 담화 후 국민의힘 쪽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을까. 정부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전 기회를 스스로 건어냈다.

박단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도 그렇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타협은 없다"고 담화 발표한 뒤 이튿날 전공의 즉석 만남을 제안했다. 하루 아침에 바뀐 정부의 태도에 의료계는 적잖이 혼란스러워 했다.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지난 4일 급박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질타를 받았다. 독단으로 '밀실 협의'를 시도한 뒤 빈손으로 돌아

와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대치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제안 거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국민 여론에 좋지 않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것 또한 정부 계산에 있던 것이라면 가히 놀랄 일이다. 일부 의사들은 이번 일을 두고 "정부가 의사들을 총선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정 양측은 이제 의료 공백 사태를 풀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는 많은 업무로 과로를 토로하고 있다. 지역민들 또한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모든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의료대란 문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기고 박선준 전남도의원

## 김 산업, 위기 속 피어나는 희망



지난해 11월 미국 대형 마트 김밥 진열대에 이런 쪽지가 붙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김밥의 인기가 절로 실감난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김은 작년 수출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효과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이 주 생산지이다. 그 중에서도 70%가량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가장 오랜 양식 역사를 가진 전 세계 대표 주산지이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성장했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수출의 호황과는 상반되게 김 생산량은 2019년 60만톤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후 평균 40~50만톤 규모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출은 매년 증가함에도 생산량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수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연안 해수온은 세계 평균 해수온 상승세보다 2배 이상 높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수온에 잘 자라는 김은 해수온이 높아지면서 생육기간이 짧아지며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황백화 현상, 갯병 등과 같은 잦은 질병 발생이 김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이 없다 보니 어업인들은 기존의 경험에만 의지한 채 양식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3년산 김 생산량은 1억 3619만속(束)으로 전년 대비 10.2%, 평년 대비 13.4%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산 물김 위판금액은 전년 대비 23.7%까지 치솟았으며, 현재 마른김 100장의 도매가격은 1년새 50% 넘게 뛰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생산의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는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정부의 수급 안정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대비 63.8%가 감소(2000년 25만1000명 → 2022년 9만805명)했고, 65세 이상 어업인구 역시 44.2%로 고령화 또한 심각하다. 2045년에는 어촌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

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촌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위기 상황이다.

어촌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 산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 지난해 농산물 수출 최선두에 있는 인삼 수출액은 2억 7000만 달러였다. 그에 비해 김 수출액은 무려 약 3배 가까이 많은 7억9000만 달러이다. 하지만 130여명의 연구인력을 지닌 한국인삼연구원은 달리 김 산업 연구인력의 수준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을뿐더러 전문 연구기관도 전무한 상황이다. 김 산업은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렇듯 종자생산에서 양식기술, 제품 개발 및 안전 성분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상품화는 김 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또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21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 같은 기초와는 상반되게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2024 ~ 2025년)'에서는 여전히 양식어장 신규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어촌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로 수출 효과품목인 김 양식 산업을 억압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어촌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은 결국 사람이다. 특히, 청년들이 어촌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양식은 젊은 수산인과 귀어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나설 수 있게 하는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면허제도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다의 잡초'에서 '김은 반도체'로 다시 태어나며 'K-Gim'으로 세계정복을 이끌고 있는 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끝없는 혁신이 뒤따라야만 한다. 김 수출액을 2027년에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현실화 되어 우리 어업인들이 푸른 바다에서 풍성한 김을 수확하며 행복한 미소가 가득차기 위해서 또한 심각하다. 2045년에는 어촌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고위험지역'에 진



사진으로 보는 세상

7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송정서평학교 동호회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보트 투게더 해피투게더'(Vote Together Happy Together)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부산=뉴시스